

현대 아이오닉 6 '연비 최강'



미국 환경보호청 측정 작년 이어 2년 연속 1위 등극
상위 10위에 기아 EV6 등 한국 전기차 8차종 포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사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2024년형 신차 가운데 연료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환경보호청(EPA)이 공동 운영하는 연료절약 정보 사이트 '퓨얼이코노미(Fueleconomy.gov)'에 따르면 아이오닉 6 롱레인지 후륜모형(18인치 휠, 복합연비 140MPGe)이 '최고 연료소비효율 차'에 올랐다. 아이오닉 6는 2023년형 모델로 인증한 지난해(140MPGe)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EPA로부터 최고 수준의 효율을 지닌 전기차로 인정받았다.

MPGe(Mile Per Gallon equivalent)는 휘발유 1갤런(약 3.785L)을 태워 얻을 수 있는 열 에너지가 33.7킬로와트시(kWh)라는 점에 착안해 미국 EPA가 사용 중인 전기차의 연료소비효율 측정 단위다. 기존 전기차의 전력소비율을 측정 단위(km/kWh)보다 내연기관차와 연료소비효율을 비교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코나 가솔린 2.0L 모델은 31MPGe이지만, 코나 일렉트릭 롱레인지는 116MPGe에 달한다. 전기차 뒤에는 소문자 'e'를 붙이지만, 소비자는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차의 에너지 효율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6는 1위뿐 아니라 총 4개 모델이 상위 10위

에 들어갔다. 일반형 후륜모형(135MPGe)이 3위, 롱레인지 사륜모형 18인치 휠 모델(121MPGe)이 5위, 롱레인지 후륜모형 20인치 휠 모델(117MPGe)은 7위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아이오닉 6 롱레인지 후륜모형(140MPGe, 18인치 휠 기준)의 연비는 2024년형 신차 평균 연비(28MPGe)의 5배에 달한다. 아이오닉 6 후륜모형을 100% 충전할 때 주행 가능 거리는 361마일(약 580km)이다.

아이오닉 6뿐 아니라 기아 EV6 롱레인지-스탠더드 후륜모형(117MPGe)도 공동 7위, 현대 코나 일렉트릭 롱레인지(116MPGe)는 8위, 현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후륜모형(114MPGe)은 10위에 자리했다. 미국 정부기관에서 집계한 연료효율 상위 10위 차종에 한국산 전기차 8차종이나 들어갔다는 점에서 한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공공연하게 입증된 것이다.

테슬라의 경우 2024년형 모델의 연비를 아직 EPA에 신고하지 않았다. 2023년형 기준으로는 모델 3(132MPGe), 모델 Y(123MPGe) 모두 아이오닉 6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낮은 편이다. 다만 테슬라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된 2024년형 모델 3과 모델 Y의 주행가능거리(EPA 기준 예상치)가 2023년형 대비 각각 17마일(약27km), 20마일(약32km)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연비 또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드(Edmund.com)는 전기차 주행거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시간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 평가에서 아이오닉 6 롱레인지 후륜모형이 888마일(약 1천396km)로 1위를 차지했다. 아이오닉 6에 이은 2위는 EV6 후륜모형(769마일, 약 1천238km), 3위 역시 아이오닉 6 사륜모형(764마일, 약 1천230km)로 나타나 역시 국산 전기차의 우수성이 두드러졌다.

시장에선 전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강화 추세로 인해 연료효율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차가 경쟁 업체 대비 유리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현지에서 판매하는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의 평균 연비를 2022년까지 58MPGe(L당 약 24.6)로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도 지난해 말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등을 강화한 '유로7'에 잠정 합의했다.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만을 측정했던 유로 6와 달리 유로7은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이 마모돼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에 대한 배출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전기차도 유로7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연비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근 '연비 표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MPGe가 도입될 경우, 연료 효율 측면에서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자동차의 비교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임재만 기자

현대차, 섬 지역 포터 EV 고객 충전기 설치 지원

60만원 상당 가정용 충전기·설치비 100만원 제공

현대자동차가 섬 지역 포터 EV 고객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현대차는 4일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서 LPG 충전소가 없는 섬 지역 거주자가 2024년 상반기 내에 포터 EV를 출고하면 60만원 상당의 7kW 가정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와 1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을 통해 포터 EV를 구매하면 동급 사양의 LPG 모델을 구입할 때

보다 차량 유지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차량을 10년 운용할 경우 포터 LPG 모델(슈퍼캡 초장축 스마트 스트림 트림)은 ▲차량 실구매가 2천107만원 ▲취득세(공제금 포함) 96만원 ▲10년 충전비 2천710만원으로 총 4천913만원이 들지만 포터 EV는 이보다 1천313만원 적은 비용이 든다.

동급 사양의 포터 EV(슈퍼캡 초장축 스마트스페셜 트림) 10년 운용 비용

은 ▲차량 실구매가 2천630만원(28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2024년 신안군 보조금 적용) ▲취득세(공제금 포함) 60만원 ▲한국전력 불입금 60만원 ▲10년 충전비 850만원으로 총 3천600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포터 디젤 모델 단종과 LPG 충전소 부족으로 섬 지역 고객이 겪을 충전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대안 지역을 꾸준히 확대해 전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현대차는 LPG 충전소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에 거주하는 포터 EV 고객에게 가정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포터 EV 충전 모습.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금호타이어-사우디 블랏코 기술수출 계약

생산 전반 기술 20년간 지원 예정...중동 진출 본격화

금호타이어가 중동의 최대 자동차 소비자이자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블랏코(Blatco: Black Arrow Tire Company)'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 용인중앙연구소에서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 조만식 연구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우디 주한 대사 사미 알 사드한(Mr. Sami Al Sadhan)을 비롯해 블랏코 회장 압둘라 알와히비(Mr. Abdullah Alwahibi), 압둘아지즈 알 오리니 부회장(Mr. Abdulaziz al Orini)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블랏코에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지역에 판매되는 승용 타이어 생산 전반에 필요한 기술을 2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와 계약을 맺은 블랏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전 2030

'정책에 따라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조기업으로, 2027년까지 사우디 서부 산업단지에 약 8만5천평 규모의 타이어 공장 완공 및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랏코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시장에서 타이어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최대의 자동차 타이어 시장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사우디 블랏코 기술수출 계약건을 통해 당사 기술 경쟁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향후 중동시장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중동시장 생산 판매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계약이 기술수출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우디 및 중동 자동차 산업과 시장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우측 첫번째), 블랏코 회장 압둘라 알와히비(우측 두번째), 사우디 주한 대사 사미 알 사드한(우측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금호타이어-블랏코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금호타이어 제공>

다"고 말했다. 아말 알 마수드 블랏코 CEO는 "금호타이어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마무리 했으며, 내년 부터 공장 착공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앞으로 기술 명가라 불리는 금호타이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품질과 기술력을 확보한 제품 개발 생산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상가 매매 (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p> <p>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p> <p>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p> <p>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p> <p>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용가능 (룸, 노래홀, 홀덱)</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최저가 3억6천</p> <p>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최저가8억3천</p> <p>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최저가 27억</p> <p>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최저가 6억</p> <p>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최저가 4억4천</p> <p>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최저가 9억3천</p> <p>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최저가 2억4천</p> <p>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최저가 26억</p>
010-6670-9800	062-382-5500	